

전주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박차

전주시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통해 전주천을 대한민국 대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천과 삼천 등 전주시 도심하천을 깃대종인 반딧불이와 수달 등 다양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에서 옛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하천 재해 예방과 시민들에게 안전과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16년도 하반기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70억원 투입 싸전다리부터 서천교까지 산책로 개선 추진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동서학동 안직교에서 서산동 삼천 합류점까지 9.8km에 걸친 지방하천 전주천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370억(국비 222억, 지방비 148억)을 투자해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 하반기 사업을 통해 새벽시장이 열리는 남부시장 인근 싸전다리부터 서천교 간 내 산책로를 개선하고, 석축 유실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제방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안전하고 편안한 하

천 진입을 위한 철계단 정비 5개소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진북동 싸다리부터 서신교 간 산책로를 정비하고,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핵심 정비구간인 남부시장 주차장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사 설계과정은 물론 시공과정까지 환경단체 및 전문가의 자문 및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남부시장 상인회와 새벽시장 상인 등과 적극 협의해 사업추진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통해 콘크리트 고정보 7개소를 친환경 여울형 보로 개선하고, 요철이 심하고 노후화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산책로(총 길이 12km)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호안정비(7km), 징검다리 14개소 개선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전주의 대표 하천이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심지 자연형 하천인 전주천을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사범시험 존치하라”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사범시험준치비대위 회원들이 사범시험 존치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동료 직원에 흉기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붙잡아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동료 직원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22)를 붙잡아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30분께 익산시 금마면 한 육가공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 B씨(71)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B씨와 함께 일을 하던 중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편의점 강도 도주극 50대 검거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고 도주하다 자신을 쫓는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익산시내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와인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준강도 등)로 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42분께 익산시 송학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와인 1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씨가 타고 달아난 1화물트럭과 시내 한복판에서 추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순찰차량 2대를 들이받고 차량 7대와 오토바이 2대를 연달아 충돌해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김영재 기자

‘가을밤! 동물원에서 추억을’

7일~16일까지 야간개장

전주동물원이 가을밤의 밤 정취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개장한다.

전주시는 가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동물원 야간개장을 실시한다.

가을 야간개장 기간 전주동물원 내 수목과 토끼어리 등에는 다양한 조명이 설치돼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물원은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입장 마감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올해 야간개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조명구간이 확대되고, 공룡테마공간과 동물캐릭터와 하트, 천사의 날개 등 다양한 포토존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동물원 입구에서 시민들까지 100여 그루의 수목에는 트리조명과 바닥 조명 등이 설치돼 마치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환상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기린지(기린 연못) 주변 토끼어리에는 다양한 포토존을 위한 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다.

중앙잔디광장에는 형형색색의 ‘동물캐릭터 조명’과 아쿠아리움 부근에 청사조롱 조명과 조명터

널이 설치돼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도화원 주변에는 공룡테마 존이 조성되어 10여개의 공룡조형물과 이를 활용한 화려한 조명이 설치돼 어린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은 주간시간대에는 어린이 및 관람객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동물생태해설사가 생명존중과 자연생태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야생동물 생태이야기’ 해설을 운영한다.

동물원은 사진 홈페이지 및 유선접수를 통해 10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해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화와 코리우스 등 계절꽃 3000본을 식재하는 등 조경 수목을 정비한데 이어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로 및 파손된 인도를 정비했다.

입장객 증가에 대비 정문에서 200m 떨어진 주차장 부근에 제2매포소(남문)도 운영하고 매표인력 충원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동물원 운행 시내버스도 증차·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입장료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1300원, 청소년 600원, 어른이 400원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농업용저수지 정비

13억원 투입 양마제 등 8곳 보수보강사업 추진

전주시가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주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의 사전 재해예방과 농경지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 13억원을 확보, 노후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총 43곳으로, 이 가운데 41곳이 축조된 지 50년 이 지난 노후저수지다.

특히 양마제 등 농업용 저수지 8곳의 경우에는 전주시가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방 누수 현상 등 재해위험성 징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 13억원을 더 투자해 10월부터 보수보강사업을 시행,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의 저수지 대부분이 노후화돼 누수와 침식, 제방 붕괴 등 갑작스런 이상 징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매 분기별로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상 징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위한 국가 예산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도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해 농업용 저수지 6곳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또, 노후된 시설물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4억7000만원

을 투입해 13곳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했고, 현재 비아제 등 5곳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 사회적기업-주택관리공단 ‘맞손’

주민 복지향상·나눔문화 확산

전주시 사회적기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주택관리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30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사회적기업 (유)국민종합주택관리와 (주)제이피섬, (유)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날 주택관리공단 평화중공 아파트 3개 관리소와 1사 1단지 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결연은 저소득층 밀집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기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지난 7

월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와 전북주택관리공단이 체결한 협약의 첫 번째 이행사업이다.

이날 협약에서 (유)국민종합주택관리와 (주)제이피섬, (유)함께하는 사람들은 각각 전주평화푸른마을관리소와 전주평화4관리소, 전주평화1관리소와 1사 1단지 결연식을 가졌다.

이들은 협약서에 따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입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장학생 등에게 생활안정 및 주거편의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전북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주택관리공단은 1사 1단지 결연을 기념해 평화동 관내 주민 400여명을 초청해 무료 자장면 나눔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또, 청소년 3

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서철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협약서에 담긴 내용을 넘어 협약서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다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